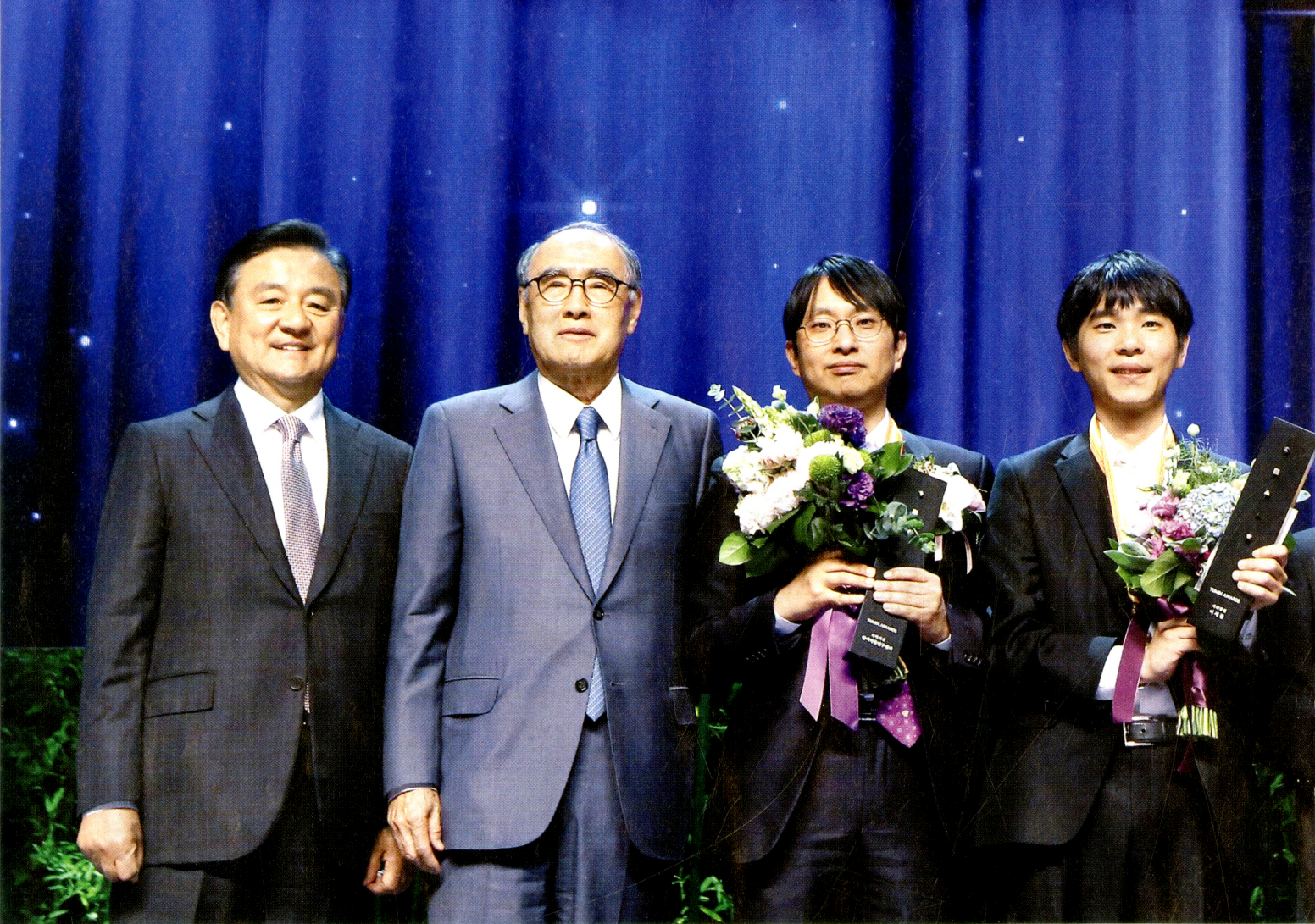


洪進基創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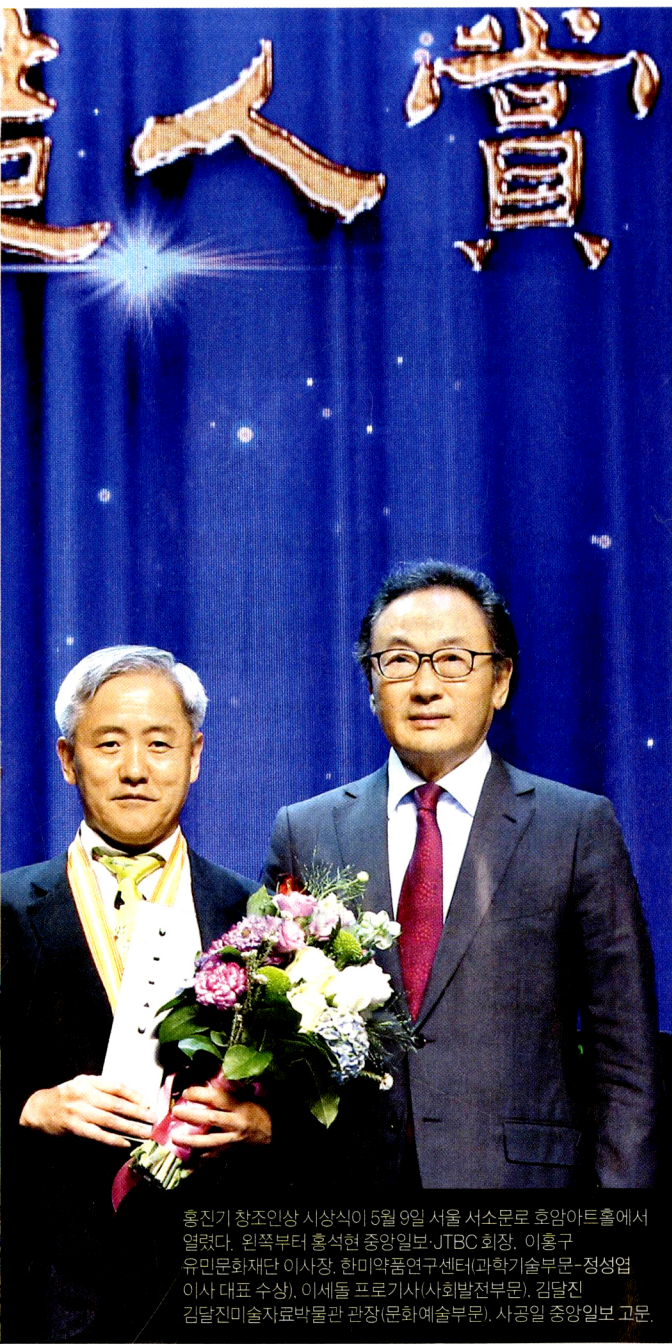


“기 존의 가치를 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자들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치를 넘어 새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월 9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에서 이세돌 9단은 사회발전 부문, 한미약품 연구센터는 과학기술 부문,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은 문화예술 부문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

심사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송자 전 교육부 장관,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이건용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이 맡았다.

이세돌 9단은 지난 3월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세기의 명승부(총 5차례)를 벌였다. 알파고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지만 이 9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값진 1승을 거뒀다.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이 5월 9일 서울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한미약품연구센터(과학기술부문-정성엽 이사 대표 수상), 이세돌 프로기사(사회발전부문),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문화예술부문),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

사진-중앙포토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 영광의 얼굴들

기존의 가치 넘어 새로운 비전 제시

사회발전 부문 이세돌 바둑 프로기사, 과학기술 부문 한미약품 연구센터, 문화예술 부문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수장... 5월 9일 호암아트홀에서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글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사진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던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洪璣基·1917~1986)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遺志)를 기리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 사회발전 부문에서는 이세돌(33) 프로기사,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한미약품 연구센터(정성엽 이사 대표 수상),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김달진(61)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미약품 연구센터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랩스커버리' 특허기술을 개발해 지난 한 해 8조원대의 기술을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달진 소장은 미술계에서 '걸어 다니는 미술백과사전'으로 불린다. 미술자료 수집에 평생을 바친 김 관장의 삶은 2013년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교과서에까지 실렸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홍진기 선생이 타계하신 지 30주년이 되는데 유민 선생께

서 생전에 강조하셨던 '창조'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뿐 만 아니라 생각하는 틀 자체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은 "한미약품은 저장장 시대에서 지적자산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조 단위의 매출을 올렸고,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김달진 관장은 한국민의 DNA에 새겨져 있는 기록의 역사를 빅데이터 시대에 새롭게 구현했다"며 각 수상자의 공로를 평가했다.①



문화예술 부문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더 풍성한 한국 미술사 기록 남기겠다”

여성잡지에 나오는 세계적 명화 오려 붙인 것이 미술자료 수집 ‘운명’으로 이어져…
“향후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에도 더욱 집중할 터”

김 달진 관장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얼굴’이다. 미술관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것처럼 그는 평생을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구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관장에겐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닉네임도 있다. 주요 미술전시가 있는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가방을 메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표·담뱃갑·껌·상표 등 인쇄물 수집이 취미였던 김 관장에게는 청계천 고서점이 놀이터나 다

름없었다. 여성잡지에 나온 세계적 명화를 오려 모은 것이 미술자료 수집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걸어다니는 미술백과사전’ 김달진을 만들었다.

그는 이 스크랩북을 들고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찾아가 보여주면서 넘죽 엮으려 큰절을 했다. 그 인연으로 198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일하게 됐다. 취미가 직업이 돼버린 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폐지 수거상으로 오해받기 일쑤

서울 홍지문 1길 김달진미술연구소에는 한국 미술사 희귀 자료의 보고(寶庫)다. 이곳을 둘러본 사람들은 미술자료에 대한 김 관장의 집념과 열정에 절로 경의를 표하게 된다.

그는 화랑과 신문사 등을 돌며 미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겼다. 찢어진 카탈로그까지 가방에 담았으니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팔았던 다리푼이 요즘 빛을 발한다. 최근 들어 자료 활용 미술전이 늘면서 국내외 전시기획자들이 김 관장을 자주 찾기 때문이다. 자료 대여가 늘었고 연구자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미술에 바친 세월만 45년. 그의 열정은 ‘미술계 114’인 김달진 관장의 뒤를 잇는 후배들에게서 열매를 맺으려 한다. 그가 4년째 주최해온 ‘라키비움 프로젝트’는 100여 명의 아키비스트(기록 관리자)를 배출했고, 올해도 6차 교육프로그램 정원 30명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라키비움(Larchivium)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보존소(Archive)와 박물관(Museum)의 영어 합성어다.

김 관장은 “좋아서 하던 일이 발전해 사명감이 생기고 직업이 됐는데 또 사회에서 인정받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목받지 못했던 미술가들을 기록해 더 풍성한 한국 미술사를 기록하겠다.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에도 집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①

